



“날아라, 한국 육상”

광주시청의 김덕현이 지난 30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멀리뛰기 결승에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김덕현은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 광주 육상 ‘은빛 도약’

멀리뛰기 김덕현, 7m90 개인 최고 기록... 경보 박철성, 최초 은메달

금메달만큼이나 빛나는 은빛 도약과 질주였다. 김덕현(29·광주시청)과 박철성(32·삼성전자), 채봉진(31·여수시청)이 한국 선수단에 값진 은메달을 선물했다. 한국 도약 종목의 자존심 김덕현이 지난 30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멀리뛰기 결승 마지막 6차시기에서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인 7m90을 뛰어넘으며 은빛 도약에 성공했다. 광주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달이다. 한국 경보의 지존 박철성은 1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남자 경보 50km에서 3시간49분15초로 레이스를 마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 경보 50km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육상을 이끌어 온 두 주축 선수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얻어낸 극적이고 감동적인 은메달이다. 김덕현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6차 시기, 육상계에서 흔히 표현하는 ‘결렸다’는 소리가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중국의 리진즈가 1차 시기에서부터 8m00을 뛰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한 가운데 1차에서 1차에서 7.49에 그쳤던 김덕현이 7m73으로 거리를 넓혔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가오상룡(중국)이 7m86을 뛰어 김덕현을 밀어냈고 4차 시기에서는 태국의 수판나라가 7.81로 3위로 올라섰다. 메달권 밖에서 맞은 6차 시기, 김덕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7m90을 찍으면서 4위에서 2위로의 대반전에 성공하며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덕현은 경기가 끝난 후 “은메달은 아주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값진 메달이었다. 김덕현은 2일 세단뛰기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경보 50km는 ‘지옥의 레이스’로 통하는 힘든 종목이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서 들어선 결승선.



영양 출신 경보 박철성

지난해 발등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박철성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재기의 순간을 그려왔다. 그리고 “우리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힌 박철성은 45km 지점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유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역전에 성공한 박철성은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선수 처음으로 50km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3시간 45분 55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3시간 56분 39초)으로 은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수시청의 채봉진은 요트 매치레이스에서 첫 은메달을 땀다. 채봉진은 박건우(33·부산시청), 조성민(27·부산시청), 김성욱(30·해운대구청), 양호엽(23·해운대구청)과 호흡을 맞춰 요트 매치레이스를 펼쳤으나 싱가포르에 0-2로 졌다. 매치레이스는 참가국들이 풀리트를 치른 다음 상위 4개 팀이 4강과 결승전을 치르는 종목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여기는 인천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카메라 플래시 팡팡...이기적 관람문화 앙~대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대회 개막 초반 조직위원회의 영성찬 대회 운영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도 많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많은 이가 자리를 이탈했고, 부적절한 행동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고향에서 열리는 축제의 현장을 빛내는 이들이 많다.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조성희(여·48)씨. 그는 배드민턴이 진행된 1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경기장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있느라 다리에 실핏줄이 다 터졌다고 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나”는 남편의 핀잔도 끊이지 않았지만 조씨는 “내 고향 인천에서 열리는 큰 대회다. 내가 언제 다시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대회에 참가해보겠나”며 웃었다. 이용대-유연성의 남자 복식 결승이 열렸던 지난 28일, 경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만큼 조씨의 발걸음은 더 분주했다. 미디어석을 통제하고 경기장 통로를 막고 서있는 관중을 자리로 안내하느라 잠시도 실 틈이 없었다. 아픈 다리보다 조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람 문화를 지키지 않는 관중이었다. 통로를 막고 서있던 커플, 다른 이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했지만 요지부

동이었다. 3차례 정도 얘기를 한 뒤에야 남자가 기본 나쁘다는 표정으로 티켓을 내밀며 자리 확인을 요청했다. 세팍타크로 경기장에서는 “카메라 플래시를 꺼주라”는 방송이 계속됐다.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된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방송은 계속됐다. 경기 도중 관계자가 직접 관람석을 가리키며 자제를 요청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종목별 협회관계자들이 통제선을 넘어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미디어석에서 볼륨을 높여 DMB로 다른 종목의 경기를 보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4년의 기다림을 이겨낸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열정의 무대. 그들의 열정을 더욱 빛나게 해줄 관객들과 관계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양보다는 질을 생각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시스템도 절실하다.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조씨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할 일을 배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회 현장 곳곳에는 특별한 역할 없이 경기장만 오가는 자원 봉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스포츠 대축제인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고향을 빛낼 무대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와 체계적인 시스템, 성숙한 관람문화가 성공적인 대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 남-북 축구, 36년 기다렸다

오늘 결승전...역대 1승1무1패

한국과 북한이 36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 무대에서 맞대결한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북한과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1978년 방콕 대회는 준결승 리그에서 1위를 한 팀끼리 단판 결승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금메달의 주인을 가렸다. 차범근, 허정무 등을 앞세운 한국은 준결승 리그에서 3승 무패 북한 역시 2승 1패로 각 조 1위를 차지, 결승에서 격돌했다.

남북대결로 치러진 결승전은 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양 팀은 패배가 두려웠던 나머지 수비적인 플레이로 일관하다가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당시 아시안게임에는 승부차기 규정이 없어 한국과 북한은 공동우승을 했다. 주장 완장을 찼던 김호곤 전 울산 현대 감독은 “커다란 긴장감이 선수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남·북 선수들 모두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돼 ‘차라리 잘 됐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기억을 돌이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부가 어떻게든 가려진다. 한국은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간, 북한은 방콕 대회 이후 36년만의 금메달을 꿈꾼다. /연합뉴스